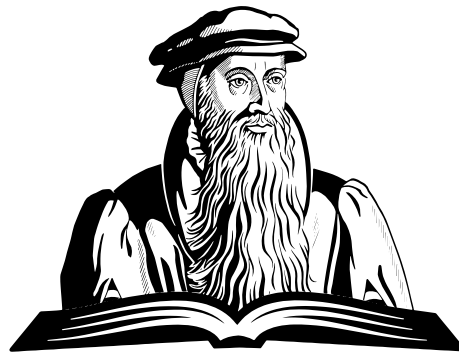

비디오 강의 학습 단계: 성경 신학

강의 25: 오순절

강의 발표자: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The John Knox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 2019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판권. 이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가 없이 검토, 의견 또는 장학금을 목적으로 간단한 인용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또는 이익을 위해 어떤 수단으로도 복제될 수 없습니다.

출판사, 존 녹스 연구소, P.O. Box 19398, Kalamazoo, MI 49019-19398, 미국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공인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합니다.

웹사이트방문: <https://ko.johnknoxinstitute.org>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자유 교회의 (continuing) 회중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있는 그린빌 장로교회에서 복음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www.freechurchcontinuing.org

학습단계

성경 신학

30 강의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21 장 구약 · 9 장 신약

구약 강의들

1. 소개
2. 창조
3. 타락
4. 노아
5. 아브라함
6. 족장 I
7. 족장 II
8. 출애굽
9. 시내산
10. 성막
11. 희생제물
12. 제사장
13. 유업
14. 다윗
15. 시편
16. 솔로몬
17. 성전
18. 왕국
19. 예언자
20. 포로기
21. 회복

구약 강의들

22. 성육신
23. 속죄
24. 부활
- 25. 오순절**
26. 교회
27. 연합
28. 삶의 적용
29. 사명
30. 영광

강의 25

오순절

강의 주제:

우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으셨으며 성령께서는 성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본문: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요한복음16:13-15).

강의 스크립트 25

만약 여러분이 많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이 멀리 떠날 것이고, 여러분은 그 사람을 더이상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아마 완전히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깊은 상실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가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요한복음14-16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떠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을 때 제자들이 정확하게 이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 전혀 손해될 것이 없다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엄청난 유익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구요? 바로 주님은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단순히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계획에서 오순절이 왜 중요한 사건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는 것과 성령의 오심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에 있어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우리가 성령의 부으심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있어서 왜 반드시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의 승천은 오순절과 어떤 관계입니까? 모든 신자들의 구원과 삶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성취된 것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성령의 부으심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오순절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그 이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에서, 성령에 대한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그리스도의 약속과 함께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희생적인 죽음을 당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15, 16장에 기록된 소위 고별강화를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곧 자신이 떠날 것이라는 사실과 그들을 위하여 처소를 마련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제자들을 불안하게 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16:6에서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18에서 보듯, 다

음과 같이 그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도대체 어떻게 그분은 오시는 것과 가시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그들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가 되셨듯이 성부께서는 그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4:26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7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참된 대리자는 로마의 교황이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교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찬탈한 자요 그분의 대적입니다.

두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떠나심과 성령의 오심 곧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될 성령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과 그리스도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성령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45:7에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9에서 보듯 이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한량없이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전에 그리스도께 오셨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기간 동안 성령과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셨는지 생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청교도 존 오웬은 제가 발견한 다른 어떤 사람보다 이 놀라운 주제를 발전시켰습니다. 제 생각에 이 주제에 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 밝혀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령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시작될 때부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의 태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성령께서 물위를 운행하시듯 누가복음 1:35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마리아)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고 합니다.

둘째,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역 내내 적극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이사야 11:2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성에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가 자랐습니다. 죄악된 어리석음에서 지혜로 자라난 것이 아니라 죄가 없고 거룩한 지혜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의 지혜로 성장하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그리스도께 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고 마태복음 4:1에 나오듯이 그 후에야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설교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표적을 성취하시면서 나오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지상사역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셨던 분은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던 성령입니다.

셋째, 우리는 십자가에서 성령의 사역을 봅니다. 히브리서 9:14에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적인 죽음을 당하실 때 그분을 지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듯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무덤 안에서 썩지 않도록 보존하셨습니다.

넷째, 성령을 포함해서 삼위일체의 삼위께서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에 역사하셨습니다. 로마서 8:11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관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임하셨고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던 바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죽을 육신도 살리시는 그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승천에 있어서 하신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요점을 다루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께서는 지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이 사역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역입니다. 요한복음15:26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백성께 그분을 보여주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16:13-15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께서 계속 감당하시는 사역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취하여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번째 요점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점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구속사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주목할만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보좌에 좌정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또 그들의 높아지신 중보자로서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시편2편, 24편, 68편, 110편과 같은 여러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 강의에서, 그리스도의 승천과 승리가 가져다준 한 가지 주요한 결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사건입니다. 사도행전2장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대로 구속사의 이 위대한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2:33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앞에서 말했던 요점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든 것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분리해서는 성령을 바르게 알거나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것이 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가지는 교제가 우리가 성령과 가지는 교제를 결정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오직 한 분 성령이 계신데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백성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과 동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많은 성령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만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던 동일한 성령이 그리스도의 백성들의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자신에게 연합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성령을 주십니다. 에스겔36:27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로 이것이 새 언약 곧 은혜언약의 핵심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은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51:11)라고 기도할 때 구약성도들은 구원에 필수적인 성령을 가지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성령충만한 사역의 모든 열매는 오순절날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이 그러하듯이, 이것도 역시 삼위일체 전체의 사역입니다. 성부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내용은 요한복음14:16에 나옵니다. 또 성자께서도 성령을 보내셨는데 이는 요한복음15: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내주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으므로 여전히 성령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다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8:9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은 최종적인 부활의 때에 이루어질 충만하고 완전한 구속에 대한 보증, 혹은, 맹세 혹은 계약금의 기능을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모든 사역에 대한 인장과 같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분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그 성령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부으셨고 성령께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때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그것이 그들의 영혼에서 역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네 번째로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3:6이 이에 대한 예가 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은 신자를 거듭나게 하고 신자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모든 것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자신의 택한 백성들의 영혼에 적용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시고 이루신 모든 것들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성령은 이 모든 것들을 적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이 죄와 의와 다가올 심판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을 계몽시키고 신자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지하고 거룩하게 하며, 힘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령은 없어서는 안 되는 위치를 차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은 결코 성경과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없이 말씀만을 가지고 있으면 이성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말씀없이 성령만 있으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과 말씀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3:16에 나오듯이, 성경을 영감시킨 성령도 신자들의 마음을 조명하고 그들의 눈을 열고 그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도 동일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능력으로 성경계시를 사용하시고 이 성경이 신자의 영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령께 이끌리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강의에서 보았던 시편을 찬송하는 것은 이에 대한 한 예입니다. 에베소서5:18,19에서 바울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와 병행하는 부분인 골로새서3:16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시편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노래하며, 성경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자의 삶에 있어서 성경의 위치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으로,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에서 그리고 스데반의 사역에서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저항해서는 안됩니다. 이에 대한 언급이 사도행전6:10과 7:51절에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했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능력과 즐거움을 상실함으로 성령의 사역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거룩하심에 대한 사랑에 불타기는커녕 죄악된 생활습관을 통해 성령의 사역을 약화시킴으로 인해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현대의 은사주의 운동은 다양한 기적과 특별한 이적과 경이로운 것과 같은 성령의 특정한 은사들을 아주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실수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독특한 은사는 신약성경에 있는 새로운 계시에 대한 표지와 확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마가복음16:20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2:22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니라”고 기록합니다. 기적은 사도시대와 연결된 일시적인 표지이지 역사 속에 있는 교회에 대한 영구한 특징이 아닙니다. 게다가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혼동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격과 성령의 은사를 분리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성령의 은사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이 강의 초반에 보았듯이, 성령의 주된 사역은 성자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사역을 하시면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3:18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3:18은, “우리가 다 수

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여기서 거울을 보는 것이 바로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가 이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변합니다. 신약성경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의 열매를 가장 강조하고 있으며 이 열매는 신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속에 있는 거룩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갈라디아서5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로 알려져 있는 목록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성령의 부으심과 신자들의 마음과 삶에 역사하는 성령의 사역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조각들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설교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설교합니까? 바로 성령께서 성자를 영화롭게 하며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교할 때 우리는 이것이 참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으셨을 때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교회에 다른 선물도 주셨습니다.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에베소서4:7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68:18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것을 교회의 직분을 주신 것에 적용합니다. 에베소서4:11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직과 선지자직은 신약성경의 시기와 함께 종료되었지만 목사와 교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선물이 됩니까? 에베소서4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 선물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전한 교리 안에서 더욱 성숙해지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고린도전서 3:21,22에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할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며 성자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진행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그 교회 안에 내주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강의에서 우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으셨으며 성령께서는 성자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사실이 이 모든 과정의 대주제에 얼마나 잘 어울리며 전개되는 구속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영광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시는 방법이라는 그 체계에 정확하게 들어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